

작년 파업 생산차질액 3조 넘어

■ 산업연구원, 138개 사업장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 전체의 80% 육박

지난해 파업을 겪은 기업들이 자체 추산한 생산차질액이 대폭 증가해 3조원을 넘고 수출차질액도 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두 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전체 노사분규

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38개 사업장(제조업 65개, 비제조업 73개) 가운데 생산·수출차질이 발생한 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생산차질액이 3조324억원, 수출차질액이 20억6천4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집계결과 나온 생산차질액은 2005년(1조2천899억원)보다 135.1%, 수출차질액은 전년(8억2천900만 달러)보다 149% 증가한 것이다. 생산차질액은 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매출손실액, 수출차질액은 생산차질액 중 수출분이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두 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전체 차질액의 각각 50.0%, 29.3%에 달했고

수출차질액은 54.7%, 32.8%를 차지해 두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및 수출차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두 회사를 포함한 9개 대형 사업장의 분규가 전체 생산 및 수출차질액의 각각 98.5%, 98.8%에 달해 몇몇 대형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생산 및 수출차질액 조사는 노사분규를 겪은 업체들의 자체 추산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이어서, 검증된 통계치는 아니다.

한편 작년 노사분규건수는 138건으

로, 2005년(287건)에 비해 51.9% 줄었지만 이 가운데 불법분규는 24건으로 전년보다 41.2% 늘었고 근로손실수는 2005년 847.7일에서 1천200.6일로 41.6% 증가했다. 건당 분규지속일수도 54.5일로 2005년에 비해 12.1% 증가하며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또 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대응도 강화돼 2005년 25건에 그쳤던 직장폐쇄건수가 지난해에는 41건으로 64%나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생산·수출차질액의 증가에 대해 "전체적 노사분규건수는 줄었지만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늘고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분규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라며 "제조 대기업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론스타 법원 판결 전 외환銀 매각 힘들 듯

승인편 '떡튀 용인' 여론 부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허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4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새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로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론스타에 대해 당장 외환은행 매각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판결 전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경우 '떡튀'를 용인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감독 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의 인수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찾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은 최소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1심 판결에서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코스피 2,000고지 뚫을까

전문가들 "연내 1,900P 후반 근접"... 단기 과열 유의

올해 안에 코스피지수가 2,000 고지를 밟을 수 있을까.

24일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증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1,900포인트 후반까지 제시했다.

◇"연말엔 2,000 근접할 것"=코스피지수가 한 때 1,8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의 하반기 지수 전망도 고점을 높이고 있다.

현대증권이 하반기 코스피지수 적정치로 1,980포인트를 제시한 것을 비롯해 삼성증권·대신증권이 1,950, 대우증권 1,900대 중반, 동양증권·국민연금·한글증권이 1,900포인트 등 대부분 증권사들이 연내 1,900선 돌파를 기정 사실화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계속되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 등을 지수 상승 동력으로 꼽았다.

대신증권 현대증권 연구원은 "기업실적

■ 증권사별 하반기 증시 전망

증권사	지수 전망	유망업종
국민연금 신한은행	고점 1,900	소재, 기계, 플랜트, 해운, LCD, 내수성장형 서비스업종
대신증권	고점 1,950	산업재, 소재, 금융
대우증권	1,650~1,900대 중반	건설, 증권,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동양증권	1,600~1,900	금융, 반도체, 전자, 소재, 자동차, 유선통신
삼성증권	1,580~1,950	신호시장 성장 수혜주, 원산지 및 관련주, 고령화 관련주
우리투자증권	고점 1,820 (상향 검토)	정보기술, 자동차, 내수소비, 증권, 보험
현대증권	1,600~1,980	에너지, 소재, 산업재

과 국내외 경기가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재평가 가속될 것"이라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주식투자 매력도 증가하고 연기금과 기관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단기 과열 신호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글로벌 금리 상승세와 중국 증시의 과열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0 돌파 이끌 주도주는=전문

가들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반기 주도주인 산업재, 소재 등 중국 관련주가 하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 외 상반기에 소외됐던 IT, 자동차주 등이 반등에 나설 것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수주 호조와 신조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종과 전방시장 호조와 한국업체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로 가치 재평가가 부각되고 있는 기계업종, 철강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철강업종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하반기에 소재업종의 매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대신 상반기에 소외됐던 IT, 자동차를 비롯해 증권, 보험주, 내수 소비주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발진설비 등 신호시장 성장 수혜주, 광산업체나 철강제조업체 등 희소자원 관련주, 교육이나 노령화 관련주 등이 하반기에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LG전자 중동서 '컴퓨터 게임대회' 후원 LG전자가 지난 23일 두바이에서 중동의 젊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LCD모니터 사용 '컴퓨터 게임대회'를 연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200명의 게이머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시장 '개미'들 거침없는 '헛발질'

증시 초호황 속 상대적 저조한 수익

올해 상반기 증시가 초호황을 구가했으나 코스닥시장에 투자한 '개미'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초부터 지난 21일까지 집계한 코스닥시장 투자자별 순매수·도 상위 10개종목 현황에 따르면 개인들이 순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하락하고 4개만 올랐다.

개인 순매수한 종목은 헬리아텍이 무려 42.01% 급락한 것을 비롯, LG마이크론 -19.86%, CJ헬스케어 -12.34%, 코아모직 -28.55%, 휴맥스 -4.42% 등의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상승한 종목은 키움증권(217.51%), 태웅(94.69%), 바이오매스(41.26%) 등에 불과했다.

이처럼 개인 순매수 종목은 하락한 경우가 더 많은 데다 하락종목은 하락률이

커 상당수 개인들은 코스닥시장 투자로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인 또 같은 기간 순매도한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급등해 평균 97.1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인 순매도한 종목들에는 서울반도체(237.37%), 성광벤드(258.4%), 주성엔지니어(181.08%) 등 코스닥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철을 밟아 한 셈이 됐다. 연합뉴스

개인사업자 대출 부당유용 점검 강화

은행권, 내달부터

이르면 7월부터 개인사업자들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사후 현장 점검 대상이 되는 대출총액과 건당 추가대출액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대폭 하향해 사후 점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중기대출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자업(TF)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개인사업자들도 중기대출 용도의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대출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건당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용도의 유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총액 및 건당 추가대출액 기준이 비외국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각각 5억원과 2억원 낮아져 사후점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과 추가 급등 등 영향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 용도로 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수출기업 원화절상 못버터 정부 적극 개입해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수출기업이 원·달러와 원·엔 환율절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버텨내는데 한계가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원화 가치의 급등락을 방지해야 하며 환율절상을 초래할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수출기업의 환율탄력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원화까지 절상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진행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침식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엔 환율하락에 대응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단가 인하폭이 점차 작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환율하락 흡수역량이 고갈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원·엔 환율절상에 비해 원·달러 환율절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일부 산업에서 원·달러 환율절상분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 하락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원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 2004년 1월부터 3년 동안 20% 절상됐고, 엔화대비 환율은 같은 기간 30%의 절상률을 기록, 수출물량이 1990년 이후 매년 14.2%씩 증가하는 데도 채산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도 수출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데, 한번 인하한 가격은 환율이 원래 수준으로 절상할 때 다시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취발유·경유 관세 2%p 인하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원산지과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

자료/ 재정경제부, 국제선

세금관련 제도 7월부터 크게 바뀐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G-마켓·옥션 등 인터넷의 사 이버 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발유·경유 관세 2%p 인하=취발유·경유·등유·중유·페로니켈·니켈과 니켈분·코발트분·생사·사료 원료인 아자분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원산지과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금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품들의 통관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38회)			팝콘복권 (제6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02 04 15 28 31 34	35		1	10억	1조 474595
			2	5억	1조 474594
			3	1천만	1조 474596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1	6개 숫자 일치	1,121,660,567	5	1만	7772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8,016,926	6	2천	832
3	5개 숫자 일치	1,578,322	7	1천	30
4	4개 숫자 일치	61,640			02
5	3개 숫자 일치	5,000			7
					8